

韓日語副詞「まして」와「하물며」의 對照研究

조 애 숙*

(e-mail: choaesook@dongguk.ac.kr)

目 次

1. 머리말
 2. 선행연구
 3. とりたて觀點에서 본 「まして」 「하물며」의 意味的 特性
 4. 他者와 自者 그리고 述語
 5. 「まして」 「하물며」의 統辭的 特性
 6. 맺음말
-

1. 머리말

본고에서는 현대일본어의 とりたて副詞중 「類推」¹⁾란 의미로 분류되는 「まして」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副詞 「하물며」를 고찰 대상²⁾으로 양 형식의 의미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

* 동국대학교 부교수, 현대일본어문법

- 1) 工藤(1977)은 「まして」의 의미를 「いわんや」와 함께 「類推」로 분류하고 とりたて副詞에 대해 「文中の特定の対象を、同じ範列に属する他の語とどのような関係にあるかを示しつつ、範列語群の中からとりたてる機能をもつ副詞」(pp.971-972)라고 정의하였다. 단 용어에 관해 工藤(1977)에서는 「限定副詞」로命名하였으나 工藤(1982)이후, 「とりたて副詞」로 改称하였다.
- 2) 본고의 고찰대상은 「まして」이외에 文語적인 표현으로 「ましてや」가 있다. 兩者를 일관하여 「まして」로 표기한다. 또한 일본어 「まして」에 대응하는 한국어로는 「하물며」이외에 「더구나/더욱이」등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들 부사가 類義語로 규정되어 왔다는 점(김선영2003:50)에서 「하물며」만을 고찰대상으로 한다.
- 3) 본고의 분석을 위해 제시한 예문 중 상대 언어의 대역본이 있는 경우는 문장 뒤에 출전을 표기한 해당 번역의 원문을 인용한다. 또한 한국어 신문에서 발췌한 예문들의 일본어 대역은 해당 신문사의 일본어판 동일기사이다. 출전표기가 없는 대역은 필자에 의한다.

- (1) 政策遂行の判断において、選挙対策ばかりを優先させるようなら、政権与党としての責任を果たしているとは、到底言えまい。まして、衆院選前の首相交代にまで言及しては、与党内の亀裂や混乱を招くばかりだ。(読売新聞2008.8.2) [정책 수행의 판단에 있어 선거 대책만을 우선시킨다면, 정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하물며 중의원 선거전에 수상 교체까지 언급하는 것은 여당내의 균열이나 혼란을 부를 뿐이다.]
- (2) 「だけど、今の地方自治体に美術館作る金なんか、ましてや余分な絵を買い込む金なんか、本当にあるわけじゃないか。」(若竹七海「依頼人は死んだ」文芸春秋 2003) [“하지만 요새 지방 자치단체한테 미술관을 만들 돈이, 하물며 쓸데없는 그림을 살 돈이 진짜로 있을 리가 없잖아.”] (권영주역「의뢰인은 죽었다」북폴리오2009)
- (3)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의 상징이다. 혈육과 떨어져 사는 것 자체도 고통인데 하물며 생사조차 모른다면 얼마나 한(恨)이 맺히겠는가. [離散家族問題は人道主義の象徴である。血縁と離れて暮らすこと自体も苦痛なのに、まして生死さえ分からないとすれば、その悲しみはどんなに深いだろうか。](중앙일보 2005.8.15)

한편 「まして」는 형태론적으로 「いつにもまして」「誰にもまして」와 같은 連語的 용법도 존재하지만 이들 용법은 본고의 고찰대상에서 제외한다.

- (4) 副産物は時代が靖国に変容を求めたことである。非宗教法人化やA級戦犯分祀論、国立追悼施設の造営論が、いつにもまして語られる。(中日新聞2006.8.16)
- (5) あの子は何という価値のある素晴らしい人生を送ったのだろうかと思う。ひるがえって私には何もない。あの子に対して恥ずかしい限りである。五十有余年を無為に過ごしている。あの子の体は健康ではなかった。しかし、精神は誰にもまして健全であった。(鈴木健二「自分学のすすめ」ダイヤモンド社 1982)

2. 선행연구

일본어 문법연구에 있어 본고의 고찰대상인 「まして」의 의미에 관한 대표적 선행연구는 크게 개별 副詞의 의미 용법을 기술한 森田(1989, 2002)와 とりたて 副詞의 관점에서 고찰한 安部(2008, 2013)로 나눌 수 있다.⁴⁾ (이하, 밑줄은 필

4) 그 외 とりたて 副詞의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로는 市川(1976), 工藤(1977, 2000)가 있고 개별형식의 의미 용법의 연구로는 飛田·浅田(1994), グループ·ジャマシイ(1998)가 있다.

자에 의한다)

[1] 森田(1989, 2002)

A) 「ある一般的な狀況の上に、さらにより厳しい狀況が加算されることにより、状態が当然そうなることを強調」するもの。「その上・・・だから、当然」の意味となる。(森田1989:1058)

(6) みんな規則を守っている。まして、君はクラス委員だ。校則を守るのは当然じゃないか。
(森田1989:1059)

B) 「ある狀況において、著しいほうの例をあげて”それですらある狀況となるのだから、他方の場合は言うまでもない”と、軽いほうの例が当然そうなることを強調する」もの。二つの狀況が「対照的な狀況」として「対比の形」で並んだものであり、「Aでさえ・・・だから、Bはもちろん・・・」という慣用的な言い回しである。(森田1989:1059)

(7) 先生でさえわからないのに、まして生徒のほくにできるはずはない。(森田1989:1059)

C) 「他との対比において、その一方を取り立てる意識」を表すもの。「AはCだから、まして、BはCだ」等の文型。(森田2002:112)

(8) 先生でさえわからないのに、まして生徒にできるはずはない。(森田2002:112)

「AましてB」구조에서 「まして」의 의미를 「A와의 관계에서 B를 제시」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점은 다른 선행연구의 기술과 일치한다.⁵⁾ 하지만 상기 A)의 「「一般的な狀況」에 보다 「厳しい狀況」의 加算」, B)의 「「著しい例」가 성립되므로 「軽い例」는 당연히 성립」된다는 기술에서 A, B에 관한 「一般的·厳しい」「著しい·軽い」의 구체적 대상과 양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애석하다.

[2] 安部(2008, 2013)⁶⁾

A) 「AましてB」의 마시테는, A와B를 공통項C와의 관계において想定していることを表す.

① 마시테의 前項의 内容Aと、마시테의 後項의 内容B、そして、双方に共通する内容であるCの3項は、それぞれ文脈から想定されること、 ② AとB의 關係は、<Aよりも

5) 「まして」의 의미에 대한 기술로는 ① 「「あなた」と比較してもっと著しい「わたし」の場合を取り上げる立場」(市川1976:238), ② 「「類推」を表し、顯著に異った二つの場合を比較して、<他方の場合さえそうだから、以下の場合ナドハいうまでもなく>という関係で、とりたてる」(工藤1977:978), ③ 「「類推的に<価値の軽重>を問う」もの。」(工藤2000:230), ④ 「前件に程度の低いものを揚げ、後件に程度のはなはだしいものが言うまでもなく成り立つ」(飛田・浅田1994:490), ⑤ 「XとXより程度の高いYを比べて」(グループ・ジャマシイ1998:539)등이 있다.

6) 예문의 표현형식을 片仮名에서 平仮名로 일부 변경하였다.

Bの方が共通項Cという条件を満たし易い>ものとして想定されること、の2点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安部2008:291)

- (9) 内供はこう云う人々の顔を根気よく物色した。一人でも自分のような鼻のある人間を見つけて、安心がしたかったからである。だから内供の眼には、紺の水干も白の帽子もはいらない。まして柑子色の帽子や、椎鈍な法衣などは、見慣れているだけに、有れども無きが如くである。(安部2008:291(예17) 및 安部2013:398(예8))

- (10) A [紺の水干や白の帽子は] C [眼に入らない] まして
B [柑子色の帽子や、椎鈍な法衣は] C [無いと同じだ] (安部2008:291(예18))

- B) マシテにおけるAとBとの関係に、「対比」と「累加」の二種類がある。(安部2013:398)

- (11) 押入の中から木綿の単衣を出すと、加恵は音を立てて布を裂いた。雲平の仕事を手伝うのに着物の一枚ぐらい潰しても惜しいとは思えない。まして於継でなく加恵が直接頼まれた仕事なのだ。(安部2013:398(예15))

- (12) A [雲平の仕事を手伝うならば]
C [自分の着物を潰しても惜しくない] まして
B [(加えて) 直接頼まれた仕事であれば]
C [自分の着物を潰しても惜しくない] (安部2013:398(예16))

安部(2008)는 森田(2002)의 연구를 발판으로 「まして」의 의미를 「AはCだから、まして BはCだ」로 분석하였고, 安部(2013)에서는 「AましてB」의 A, B의 관계를 「対比」((9)), 「累加」((11))의 2종류로 나누었다.

하지만 다음(13)처럼 「AましてB」의 A, B의 관계가 「対比」의 특성으로 지적한 「全く別のものであるAとB」(安部2013:398)도 아니고, 「累加」의 특성인 「BはAに条件を加えたもの」(安部2013:398)도 아닌 경우는 어떤 관계인지 명확한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⁷⁾

- (13) 少なくとも百マイルを走ったあの夜、マリに告げた愛の言葉に嘘はない。マリほどの力と情熱を持って人を愛することはできないにしろ、自分はマリを愛していると安男は思った。<ともに暮らした女>に対する、情などではない。ましてや[愛されることを信じようとする女]への、憐れみなどではなかった。マリを愛していた。周囲の総意に従ってマリを捨てようと考えたとき、心の底から、マリを愛していると安男は思った。(浅田次郎 「天國までの百マイル」朝日新聞出版2000)

- (14) A [ともに暮らした女に対する] C [情ではない] まして
B [愛されることを信じようとする女に対する] C [憐れみではない]

7) 安部(2013)은 「まして」와 「なおさら」와의 異同에 중점을 둔 연구로서 특히 「まして」에서 「累加」로 제시한 예는 유일하게 상기(11)뿐이다. 「AましてB」에서 A, B의 관계를 세밀하게 분류하고자 한다면 보다 다양한 예문을 분석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13)에서 「まして」의 A 「ともに暮らした女」와 B 「愛されることを信じようしない女」는 모두 「マリ」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A, B의 관계는 「全く別のものであるAとB」도, 「BはAに条件を加えたもの」도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AましてB」의 A, B의 관계에 대한 「對比」 「累加」의 弁別이 통사적 특성과 같은 명확한 근거에 의한 구별이 아니라 文脈 등의 정보에 의한 의미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예문에 따라 「AましてB」의 A, B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분류를 시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분석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의 A, B의 관계가 존재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AましてB」의 A, B의 관계에 따른 분류를 시도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AましてB」의 「まして」가 「A와 B의 對比」라는 とりたて機能을 가지고 있고 「B가 A보다 해당 사태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이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9)(11)(13) 모두 일치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어 副詞연구에서 「하물며」에 관한 기술은 주로 品詞論的 분류⁸⁾에 초점이 맞추어져 의미론적 관점에 입각한 개별 副詞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물며」의 의미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기술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보인다.

(15) 「하물며」의 의미용법에 관한 기술

- a. 김경훈(1999:67): 「하물며」는, 어떤 명제 함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가능한 후보들 중 명제성립의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도 성립되므로 명제 성립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당연히 성립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 b. 박지숙(2002:17): 「하물며」는 의문형 어미와 호응하여 수사 의문문을 형성하며 앞의 내용과 견주어 뒤의 내용에 대한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드러난다.
- c. 김선영(2003:50-51): 「하물며」는 선행문장에 제시된 내용에 후행문장의 내용이 부가되는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

(16) 「하물며」의 선행예문

- a. 성탄절에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기뻐하는데 하물며 신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신자들임에랴.(김경훈1999:67)
- b. 짐승도 은혜에 보답하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야 말해 무엇 하라? (박지숙2002:17)
- c. 이 세상에 고정 불변한 것은 없다. 하물며 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영원 무궁토록 빛날 수 없다. (김선영2003:51)

8) 「하물며」에 대한 품사론적 규정은 남기심·고영근(1993:180)은 접속 부사로 분류하였고, 손남익(1995:24-26)은 「하물며」를 부연을 나타내는 서법 부사로 분류하였다. 또한 최현배(1971:601-603)에서는 「하물며」를 접속 부사 및 양태부사인 말제어찌씨(語式副詞)의 2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상기의 지적에서 「하물며」는 「명제성립 가능성의 高低관계」나 「선행내용과 후행내용의 견중(比較) 또는 부가」 「명제 성립 가능성이 높은 대상은 후행내용」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기술은 「まして」의 의미인 「A와 B의 対比」 「B가 A보다 해당 사태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과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단, 「하물며」에 대한 고찰이 부사연구의 일환으로 언급된 것으로 「하물며」 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아니어서 의미론적 관점에서의 상세한 기술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 또한 韓日語 対照研究 입장에서 「まして」와 「하물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まして」 및 「하물며」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분석결과를 참조로 하면서, 이하 3장에서는 とりたて觀點에서 「まして/하물며」의 의미적 특성을 고찰하고, 4장에서는 실제문장에서 나타나는 「まして/하물며」文과 「AはC、ましてBはCだ」 「A는 C, 하물며 B는 C이다」文型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5장에서는 통사론적 관점에서 양자의 共通点과 相異点을 논한다.

3. とりたて觀點에서 본 「まして」와 「하물며」의 意味的 特性

문법용어로서 「とりたて」란 「<문중에서 초점화(focusing)되는 요소(自者⁹⁾>와 <그와 対比되는 다른 요소(他者)>와의 範列的關係(paradigmatic relation)를 나타내는 것」¹⁰⁾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7)(18)의 「だけ/만」은 양자 모두 「太郎がXを飲んだ/타로가 X를 마셨다」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한 集合중에 自者 「ビール/맥주」는 「飲んだ/마셨다」로서 肯定되고, 他者 「ビール以外 (ワインなど/와인 등)」은 「飲まなかった/마시지 않았다」로서 否定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17) 太郎はビールだけ飲んだ。

9) 「自者」 「他者」란 용어 및 정의는 沼田(1986, 2009)에 따른다. 특히 自者と 他者は 「同一の集合に属する同類のもの」(沼田2009:38)이며, 양자에 나타나는 「同類性」은 ①構文論的同類性、②語彙論的同類性、③文脈依存的同類性이란 3가지 측면(沼田2009:46-54)에 의해 유지된다.

10) 「とりたて」와 관련된 표현은 일본어의 경우 「とりたて助詞(寺村1991)/とりたて詞(沼田1986)」 「とりたて副詞(工藤1982、小林1992)」, 한국어는 「特殊助詞(최현배1971)/焦点助詞(최규런1998)」 「焦点副詞(최규런1998, 김정민2000)」로 분류된다. 문법용어로서 지금까지 기술된 「とりたて」의 정의는 조예숙(2009:394)참조.

(18) 타로는 맥주만 마셨다.

이러한 분석방법에 의해 개개의 とりたて를 나타내는 표현형식의 의미기술이 가능하다. 이것은 「だけ/만」 등의 とりたて助詞뿐만 아니라 とりたて의 의미를 가지는 とりたて副詞의 의미 분석에서도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とりたて觀點에서 とりたて副詞「まして」와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하물며」의 의미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まして」 및 「하물며」에 의한 自者と 他者が 어떤 관계로 연결되며,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이하, 自者は[], 他者は< >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19)(20)의 「まして/하물며」는 구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과 문(혹은 절과 절) 사이에 나타나 양자를 이어주는 접속사(혹은 접속부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19) 一生、自宅から通勤できることをおもな——さらには、ほとんど唯一の理由として、地元
の市役所・町役場・農協に就職したがる大学生が著しく増えている。<県庁>
と、すでに僻地勤務の危険がある。まして[企業]など、かりに本社は地元にあつても、
国内はもちろん国外も含めて、いつどこへ飛ばされるかわかったものではない。

(飯田経夫「「ゆとり」とは何か」講談社1982)

(20) 조신은 달레의 저 고운 얼굴과 보드라운 살이 <늡으려니 하면> 슬펐다.
하물며 그것이 [죽어서 썩어지려니 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 (이광수 「유정/꿈」 마당미디어1994)

의미론적 관점에서 보면 (19)의 「まして」는 「평생 자택에서 출근 가능한 직장」을 선호하는 대학생의 증가로 인해, 自者「企業」와 他者「県庁」은 모두 대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근무처로서 對比되고 있다. 양자 모두 述語「僻地勤務할 危険이 있는」직장이란 점은 동일하지만 他者「県庁」보다 自者「企業」이 「(자택을 떠난) 国内은 물론 国外」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述語가 나타내는 事態를 성립시킬 가능성이 높은 대상으로 판단된다. (20)의 「하물며」는 「조신이 견딜 수 없이 슬픈 이유」로서 他者「(달레의 저 고운 얼굴과 보드라운 살이) 늡어 질 것」이라는 조건보다는 自者「(달레의 저 고운 얼굴과 보드라운 살이) 죽어서 썩어질 것」이라는 조건을 對比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늡는 것」보다는 「죽어 썩어지는 것」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他者보다는 自者の 程度가 심하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은 「まして/하물며」文에서 나타나는 의미해석을 간략하게 自者と 他者로 분리하여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9')[県庁は] [僻地勤務の危険がある] (他者)

[企業は] [いつどこへ飛ばされるかわからない(一層僻地勤務の危険がある)] (自者)

(20')[달레의 저 고운 얼굴과 보드라운 살이) 늡으려니 하면] [슬펏다]

(他者)

[(달레의 저 고운 얼굴과 보드라운 살이) 죽어서 썩어지려니 하면]

[(더 더욱) 건딜 수가 없었다(슬펏다)] (自者)

또한 「まして/하물며」는 후행하는 명사 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21) 伊豆の師走は、雨が多い6月と9月に次ぐ<閑散期>まして[平日]である。往復の特急も宿の部屋も、半分は空いていた。観光地の見どころやサービスの分け前が増えた気分だ。(天声人語2007.12.23)

(22) <금수>도 고향을 그린다고 한다. 호마(胡馬)는 늘 서 있어도 북풍을 향해 서 있으며 남쪽 따스한 월(越)나라에서 온 새들은 나무에 앉아도 꼭 남쪽을 향한 가지에만 골라서 앉는다고 한다. 하물며 [인간]이라.(김이관 「감추어진 비밀」 기독교문화사1993)

(21)의 「まして」는 「12월 달 伊豆지역 관광객의 減少現象」의 원인으로 他者 「閑散期」와 自者 「平日」 모두 해당되지만 他者보다는 自者が 「往復 特急, 宿의 部屋」가 반 정도 비어있는(즉, 관광객이 적은)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대상이라고 해석되며, (22)의 「하물며」도 「고향을 그리는」 대상으로서 他者 「금수」보다는 自者 「인간」이 보다 述語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태를 실현시킬 가능성의 程度가 높은 대상이다. (21)(22)의 의미해석을 自者と 他者로 나누어 부연 설명한 것이 (21')(22')이다.

(21') [(伊豆の師走の観光客の数は) 閑散期なので] [少ない] (他者)

[(伊豆の師走の観光客の数は) 平日なので] [(より)一層) 少ない] (自者)

(22') [금수는] [고향을 그린다] (他者)

[인간은] [(더 더욱) 고향을 그린다] (自者)

단, (21)(22)에서 「まして/하물며」의 自者및 他者は 구문적으로는 명사 술어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의미적으로는 각각 「少ない」 「고향을 그린다」라는 述語가 생략된 문장의 일부이다. 즉 「まして/하물며」는 구문적으로 접속사적인 기능((19)(20))과 부사적인 기능((21)(22))을 하지만 의미적으로 문중의 自者를

초점화하여 그와 對比되는 他者와의 關係를 논하는 點은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まして/하물며」는 양자 모두 의미적으로 對比되는 自者と 他者
가 모두 共通된 述語에 의해 연결되는 點과 述語와의 程度가 自者と 他者 사
이에 차이가 보인다는 2가지 點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まして/하
물며」에 있어서의 自者と 他者は 모두 해당 述語가 표현하는 事態를 성립시
키기 위한 主体(혹은 事件, 理由)이라는 點은 일치하지만, 述語가 표현하는 事態
(혹은 動作)를 성립시킬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면 他者보다 自者가 더 높은
대상이다. 이것은 (19)-(22)에서 自者の 述語에 「(より) 一層,」 「더 더욱」 등
의 程度가 높음을 나타내는 表現을 부가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點에서도 이해된다.

이와 같이 自者가 他者보다 述語가 나타내는 事態를 성립시킬 가능성이 상
대적으로 높은 요소라는 것은 自者と 他者사이에 서열이 성립되는 다음의 예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3) 朝青竜のあの執拗さは相撲道に反する。怪我を防ぐ観点からも角界には勝負の決
着後のマナーとして厳然としたルールがある。裏返しにされた力士が禪から手を離さ
ず、しがみついていたら、どうなるのか力士ならそれくらいのことは解っている。少し前
なら、そんな相撲を取ろうものなら「田舎相撲」とどやしつけられたものである。

互いに怪我をすることが歴然としているからである。<プロの力士>として恥とすべき
行為である。ましてや[横綱]だ。この一番でも、朝青竜は力士として未熟さを露呈し
た。(赤嶺逸男「大相撲に魅せられて」国書刊行会2005)

(23') [プロの力士として] [恥とすべき行為である] (他者)
[横綱として] [(より)一層] 恥とすべき行為である] (自者)

(24) 福島第一原発の事故賠償を支援する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がスタートした。
理事長に就任した前一橋大学長の杉山武彦氏は、賠償規模について「当面は3
兆~4兆円」と見通しを示した。(中略) 仮に賠償負担にめどがなかったとしても、
原発事故の処理や除染にかかる費用は相当額にのぼる。何より、原子炉や燃料棒
の廃棄費用の問題がある。廃炉は、通常でも<1基500億円以上>かかるとさ
れる。ましてや炉心熔融を起こした炉の処理となれば、[兆円単位]にのぼるとの見方
がもっぱらだ。(朝日新聞2011.09.28)

(24') [(廃炉の処理費用は) 1基500億円以上かかる] [とされる](他者)
[(炉心熔融を起こした炉の処理の費用は) 兆円単位にのぼる]
[との見方がもっぱらだ] (自者)

(23)에서 스모 업계의 규율을 지켜야 하는 대상으로는 他者 「프로 力士」 뿐

만 아니라 自者「橫綱」도 당연히 포함된다. 양자 중 述語「羞恥라고 해야 할 行為」를 하면 안 되는 대상으로 보다 程度가 높은 것은 프로 스모선수 중 최고지위인 自者「橫綱」일 것이다. (24)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원자로 폐기와 관련된 처리비용으로 예측되는 금액은 他者「500億円以上」보다는 自者「兆円単位」가 보다 큰 금액이다. 이러한 의미해석은 한국어「하물며」의 경우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25)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지도자의 적절한 말 한마디는 시장에 자신감과 희망을 되찾아 주는 소중한 힘이 된다. 반대로 잘못된 발언은 경제주체들에게 더 큰 불신과 혼란을 안긴다. <경제 부처 장관관>의 말에도 천금 같은 무게가 실려야 하거니와 **하물며** [대통령]에 이르러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말에는 정확한 현실 진단과 일관성, 강한 책임 의식이 배어 있어야 한다. (동아일보2004.11.15)

(25') [경제 부처 장관관의 말에는] [천금 같은 무게가 실려야 한다] (他者)
[대통령의 말에는] [(더 더욱) 천금 같은 무게가 실려야 한다] (自者)

(26) 단들이 맞대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어도 너와 나의 언어감각은 다를 것이다. (중략) 서로가 자기만의 의미영역을 지니는 언어를 소지하는 우리에게 완전한 상호이해가 과연 가능할까? <단들이서>도 힘들는데 **하물며** 강단에서 또는 회의실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을 상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돈키호테와 같은 만용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고대신문사「탁류세평: 시대의 지성이 바라본 세상」고대신문사1996)

(26') [단들이서도] [(언어의 완전한 상호이해가) 힘들다] (他者)
[수십 명, 수백 명을 상대할 때는]
[(언어의 완전한 상호이해가) 훨씬 더 힘들다] (自者)

(25)에서도, 「경제가 어려울 때 관련된 발언」을 하는 주체로 他者「경제부처 장관」도 自者「대통령」도 모두 신중한 발언이 요구되는 대상이다. 문맥상 「대통령의 발언의 무게」와 관련된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他者보다도 서열적으로 윗사람인 自者「대통령」이 보다 「천금 같은 무게가 실린」 발언을 해야 할 대상이다. (26)은 개개인의 언어감각의 차이에 의하여 述語「(언어의 완전한 상호이해가) 힘들다」라고 예상되는 대상은 他者「단 들(의 대화)」보다는 自者「수십 명, 수백 명(과의 대화)」가 훨씬 어렵다고 해석된다.

특히 「まして/하물며」 모두 自者가 他者보다 해당 문장이 나타내는 事態를 성립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소라는 점은 다음과 같이 自者と 他者の 위치를 바꾼 (27b)-(30b)가 원래의 예문인 (27a)-(30a)보다 부자연스러운 점에서도 이해된

다.

- (27)a. <프로의力士>として恥とすべき行為である。ましてや[横綱]だ。
 b. ?? <横綱>として恥とすべき行為である。ましてや[プロの力士]だ。
- (28)a. 廃炉は、通常でも<1基500億円以上>かかるとされる。ましてや炉心溶融を起こした炉の処理となれば、[兆円単位]にのぼるとの見方がもつぱらだ。
 b. ?? 炉心溶融を起こした炉の処理は、通常でも<兆円単位>かかるとされる。ましてや廃炉の処理となれば、[1基500億円以上]にのぼるとの見方がもつぱらだ。
- (29)a. <경제 부처 장관>의 말에도 천금 같은 무게가 실려야 하거니와 하물며 [대통령]에 이르러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b. ?? <대통령>의 말에도 천금 같은 무게가 실려야 하거니와 하물며 [경제 부처 장관]에 이르러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 (30)a. <단둘이서>도 힘든데 하물며 강단에서 또는 회의실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을 상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돈키호테와 같은 만용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b. ?? 강단에서 또는 회의실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을 상대로>도 힘든데 하물며 [단둘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돈키호테와 같은 만용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한편 「A まして/하물며 B」에서 (31)(32)처럼 他者と 自者が 동일인물 또는 동일사태를 논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他者と 구체적인 自者の 對比로서 해당 명제 성립 가능성이란 관점에서 보면 「성립가능성이 낮은 他者と 성립가능성이 높은 自者の 對比」라고 할 수 있다.

(31) <国会議員>には一般国民より高い規範意識が求められる。まして西村真悟・民主党衆院議員は[弁護士]でもある。弁護士法2条には「弁護士は高い品性の陶冶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ある。その弁護士法に違反した疑いで逮捕されるとは、法曹として国会議員として国民の負託をひどく裏切るものだ。西村議員は辞職して責任をとるべきだ。(日経新聞2005.11.29)

(31') [国会議員には] [(一般国民より高い規範意識が)求められる] (他者)
 [弁護士(でもある西村真悟・民主党衆院議員)には]
 [(より一層) (一般国民より高い規範意識が)求められる] (自者)

(32) 물론 재정부 출신들이 금융기관장 자리를 독차지해온 관행은 깨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재정부 출신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그것 역시 사리(事理)에 맞지 않는다. 하물며 [‘재정부 출신은 안 된다’는 것을 청와대가 의중에 둔 사람을 얹히기 위한 명분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더 더욱

안 될 일이다. (조선일보2004.11.28)

(32') [재경부 출신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사리에 맞지 않는다] (他者)
 [‘재경부 출신은 안 된다’는 것을 청와대가 의중에 둔 사람을 앉히기 위한
 명분으로 삼는다면] [더 더욱 안 될 일이다(사리에 맞지 않는다)] (自者)

(31)의 경우 「一般国民보다 높은 規範意識」이 요구되는 대상으로서 他者 「国会議員」과 自者 「弁護士(인 西村真悟·民主党衆院議員)」가 對比된다. 문맥상 「弁護士法을 違反한 혐의로 逮捕」라고 언급되어있듯이 보다 높은 規範意識을 가져야할 대상은 「国会議員(으로서의 西村真悟)」보다는 「弁護士(로서의 西村真悟)」로 판단된다. 즉 他者인 国会議員에게 요구되는 사태를 전체로 할 때 自者は 弁護士이며 동시에 国会議員이므로 他者보다 높은 規範意識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32)의 경우도 他者 「재경부 출신은 무조건 안 된다」와 自者 「‘재경부 출신은 안 된다’는 것을 청와대가 의중에 둔 사람을 앉히기 위한 명분으로 삼는다」는 양자 모두 述語 「사리에 맞지 않는」 조건에 해당한다. 他者보다는 해당조건에 「청와대의 의중에 따르기 위한 명분」이라는 새로운 조건이 부가된 自者の 程度가 述語가 나타내는 사태를 성립시킬 가능성이 높은 조건일 것이다. 이것은 (32)처럼 自者の 述語가 「더 더욱」이란 높은 程度표현의 修飾을 받는 점에서도 이해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A まして/하물며 B」의 「まして/하물며」는 동일한 述語로 연결되어 他者と 自者를 對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통되는 述語가 나타내는 사태에 대하여 他者보다 自者가 상대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높은 요소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그렇게 때문에 他者보다 自者と 결합되는 述語의 程度가 보다 심한 요소라는 해석이 되기 쉽다. 이러한 해석은 특히 自者と 他者가 동일인물이나 동일사태를 나타내는 경우에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4. 他者と 自者 그리고 述語

森田(2002)는 「まして」를 「他との對比において、その一方を取り立てる意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まして」가 「「AはCだから、まして、BはCだ」等の文型」(p.112)으로 나타난다고 기술하였다. 단, 森田(2002)은 A,B,C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시한 예문을 살펴보면(33')와 같은 문형이라고 판단된다.¹¹⁾

- (33) 先生でさえわからないのに、まして生徒にできるはずはない。(=(8))
 (33') A [先生は] C [わからない]のだから、まして B [生徒には] C [できない].

이와 같은 기술방법은 바로 3절에서 「まして/하물며」의 의미를 自者と 他者を 분리한 기술과 유사하다. 하지만 「まして」文을 「AはC、まして、BはCだ」文型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반드시 A, B, C 모두가 문장 안에 표현되지 않고 A, B, C의 3者 중 어느 것이 생략되어 문맥에서 想定되는 타입도 존재한다.¹²⁾

예를 들어 (34)는 A,B,C 모두가 표현된 타입이고, (35)는 A의 C가 생략, (36)는 B의 C가 생략된 타입이다.(이하 각 예문의 「'」은 「AはC、まして、BはCだ」文型으로 교체한 것이고 【 】는 생략된 부분을 가리킨다)

- (34) 仕事は定年になっても、<家庭>に定年はない。ましてや、[自分の人生]に定年はないはずである。(森清「選び取る「停年」」講談社1992)
 (34') A [家庭に] C [定年はない] まして
 B [自分の人生に] C [(一層)定年はない]
 (35) 有権者の負託を受けている<国会議員>、まして[閣僚]が自殺するのは残念な行為だと言わざるを得ない。(毎日新聞2007.5.29)
 (35') A[国会議員が(自殺するのは)] 【C[残念な行為だ]】 まして
 B[閣僚が(自殺するのは)] C[(尚一層) 残念な行為だ]
 (36) <泥棒に入られて>喜ぶ人はいない。ましてや[盗まれたのは一億七千万円の現金]である。(中日2001.1.24)
 (36') A[泥棒に入られたら] C[喜ぶ人はいない] まして
 B[一億七千万円の現金を(泥棒に)盗まれたら] 【C[喜ぶ人は (より一層) いない】】

한편 「하물며」의 경우도 「A는 C, 하물며 B는 C이다」文型으로 바꾸면 A, B, C의 관계가 「まして」와 동일한 現象을 보인다.

- (37) <선생의 마음>도 안쓰러운데 하물며 그 [엄마의 가슴]은 얼마나 애가 탈까.
 (우리교육 편집부「우리교육 중등용 10월호」우리교육 1994)
 (37') A [선생의 마음이] C [안스럽다] 하물며
 B [엄마의 마음이] C[(더욱 더) 안스럽다(애가 탄다)]

11) 단 (33')의 述語「わからない」와「できない」는 표현자체는 다르지만, 양자가 나타내는 의미는 동일하며 이러한 현상은 沼田(1986, 2009)가 지적한 自者と 他者の「同類性」과 일치한다.

12) 지금까지 제시한 예문 중, A,B,C 모두가 표현된 예는(1)(3)(13)(19)(20)(24)(26)(32)이고, A,B,C중 어느 것이 생략된 예로 B의 C가 생략된 예는 (22)(23)(25)(31), A의 C의 생략은 (2), A와 B의 C가 모두 생략되어 문맥에서 想定되는 예는 (21)이다.

- B [兵隊の体力に限りがあるため(脆弱なので)] 【C[(尙一層)(原住民に)自分たちが無害だという態度を示すに越したことはない】
- b. A[병사들이 가진 탄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C[(원주민에게)자신들이 무해한 존재라는 태도를 나타내고 불일이었다】 **하물며**
 B[병사들의 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약골이어서)] 【C[(더 더욱)(원주민에게) 자신들이 무해한 존재라는 태도를 나타내고 불일이었다】
- (41)a. 「いよいよ決まったよ」「えっ、何が」「僕の結婚だよ」(中略) <目の前の男を決して愛していたわけではない>。**ましてや**[自分は人妻なのだ、腹を立てる道理は何ひとつないのであるが、話を聞くにつれて次第に息苦しくさえているのである。(林真理子「不機嫌な果实」文芸春秋2001)
- b. “드디어 그게 결정됐어” “결정되다니, 뭐가요?” “결혼문제” (중략) 물론 그녀는 <노리오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하물며** [그녀 자신은 한 남자의 아내]였다. 따라서 화를 내거나 불쾌하게 여길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노리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울화가 치밀어서 숨이 다막힐 지경이었다. (정희성역 「불유쾌한 과일」 큰나무2009)
- (41')a. A [目の前の男を愛していなかったので] 【C[その男の結婚に反対する理由はない】 **まして**
 B [自分は人妻なので] 【C[その男の結婚に反対する理由はない】
- b. A[(그녀는) 눈앞의 남자(노리오)를 사랑한 적이 없었으므로] 【C[그 남자의 결혼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물며**
 B[그녀 자신은 한 남자의 아내이므로] 【C[(더 더욱) 그 남자의 결혼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상과 같이 「まして/하물며」가 나타나는 文을 각각 「AはC、まして、BはCだ」 및 「A는 C, 하물며 B는 C이다」 文型으로 변환하면 반드시 A, B, C의 3자가 모두 문중에 明示되는 것은 아니고 他者A 또는 自者B의 述語C가 생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自者뿐만 아니라 他者の 述語가 모두 문맥에서 想定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述語의 생략은 동일한 述語가 自者 및 他者 양쪽 모두와 관련되기 때문에 어느 쪽의 述語가 생략되어도 文의 해석은 가능하며 述語가 모두 생략된 경우라도 문맥상의 정보에 의해서 생략된 述語의 想定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工藤(1977)의 「とりたて」에 대한 「表現されていない他の同類の物事の語句に対してどのような取り上げ方をするかということ」(工藤2000:180)라는 定義는 「まして/하물며」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まして/하물며」가 나타내는 「他者と 自者の 対比」란 의미특성은 「他の同類」(본고의 他者)가 「表現され

ていな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표현되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述語가 나타내는事態의 성립 가능성이 높은 대상으로 自者を 규정하는 것은 성립 가능성이 낮은 他者와의 상대적 비교에 의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5. 「まして」「하물며」의 統辭的 特性

통사론적인 관점에서, 韓日語 とりたて副詞는 문장의 다양한 위치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¹⁴⁾ 분포적으로 문장 안에서의 위치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韓日兩言語 とりたて副詞의 커다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まして/하물며」의 경우를 살펴보면 (42)-(44)와 같이 구문적으로 格成分, 副詞的成分, 節 등의 문중의 다양한 요소에 선행한다.

- (42)a. 提供される放送の内容に注文をつけることもできないのに「黙って払え」と言われても、
 <視聴者>は、**まして**[NHKをみない、いわば視聴者でさえない人]は納得できない。
 (中日新聞2006.6.5) [格成分]
- b. 제공된 방송내용에 주문을 할 수도 없는데 ‘아무 말 말고 지불하라’고 해도
 <시청자>는 물론, **하물며** [NHK를 보지 않는, 소위 시청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은 납득할 수 없다.
- (43)a. 脅威までは感じなかったのかもしれないし、もし怯えていたとしても、先生は<僕>にも弱み
 を見せたくなかったんでしょう。**ましてや**少々のことで[警察]に相談したりしなかったはず
 です。(有栖川有栖「白い兎が逃げる」光文社2003) [副詞的成分]
- b. “위협까지는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만약 겁이 났어도 선생님은 <제>게
 도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물며** 작은 일로 [경찰]에 의논하
 지는 않았겠지요. (김선영역「하얀 토끼가 도망친다」시작 2008)
- (44)a. 町はずれの道だけ夜中に<人や車の往来が激しかった>わけではないし、**ましてや**[雪が
 そこだけを避けて降った]はずもない。(有栖川有栖「山伏地藏坊の放浪」創元社
 2002) [節]
- b. 마을 외곽 길만 밤중에 <사람과 차의 왕래가 잦았을> 리도 없고, **하물며**

14) 韓日 양 언어의 문법연구에 있어 とりたて副詞의 분포적 특징에 대하여 각각 ①「文中のいろいろな箇所
 所に用いられて、なんらかの対象を取り上げることによって、それ以下の叙述を誘導する」(市川1976:238), ②
 「限定副詞(本稿でのとりたて副詞)の文中での位置は、「むしろ」のように比較的自由にいろいろな箇所に用い
 られるものもあるが、「ただ」や「たとえば」のように、とりたてる対象の直前に位置するのを原則とするものが多い」
 (工藤1977:972), ③「초점사(초점조사 및 초점부사)의 뚜렷한 통사적 속성 가운데 하나가 위치의 다
 양성」(최규련2005:27)라고 기술하고 있다.

[눈이 거기만 피해 내렸을] 리도 없다. (권영주역 「행각승 지장스님의 방랑」 비채 2010)

상기의 (42)-(44)에서 보이는 後接하는 요소들의 다양성은, 양 언어의 副詞 중에서 해당 副詞가 たりたて副詞인지 아닌지를 弁別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한편 「まして/하물며」의 통사적 특성으로 각각 「「なんぞ、なぞ、なんか」のような副助詞と共存」(工藤1977:978), 「‘하물며’의 초점을 받는 성분에는 보조사‘-이야’가 결합되는 경향이 있다」(김경훈1999:67)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 예문을 보아도 양자가 공존하는 예는 적지 않다.

(45)a. 忘年会の karaoke で? 結構。齊唱しては。歌い手を笑っちゃいけない。まして、彼の唱歌をナショナリズムなんぞと短絡誤解するのは論外ですよ。(中日新聞 1999.12.5)

b. 「屍体に指一本触れるのでさえお上の許しが必要なのですよ。まして肉を切り刻む解剖なぞ出来るわけではないわ」(渡辺淳一 「花埋め」新潮文庫1960)

c. 「だけど、今の地方自治体に美術館作る金なんか、ましてや余分な絵を買い込む金なんか、本当にあるわけじゃないか。」 (= (2))

(46) 인기에 대뜸 솔깃해지는 것이 바로 군중심리다. 하나의 상품도 인기를 얻어야 잘 팔리거늘 **하물며** **사람이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는가?(김양호 「화술과 인간관계」 영언문화사 2001)

「まして/하물며」와 共存하는 「なんぞ、なぞ、なんか」와 「-(이)야」는 모두 たりたて助詞로 분류되는 형식¹⁵⁾으로 각각의 의미는 「ものごとの程度のはなはだしさを表す」(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2009:149), 「힘들어냄」을 나타내며, 힘주어 드러냄으로써 상대적으로 견준의 의식이 강해짐」(김석득1992:361)이다. 즉 「なんぞ、なぞ、なんか」 및 「-(이)야」는 의미적으로 수식하는 요소(本고의 自者)가 「견준」하는 다른 요소(他者)에 비하여 해당 요소의 程度가 높은 요소라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의미는 바로 「まして/하물며」와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まして/하물며」와 「なんぞ、なぞ、なんか/-(이)야」의 共存은 서로 유사한 의미를 가진 형식들을 각각 助詞와 副詞라는 품사적 차이에 따른 분포적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위치에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他者보다 自者の 程度가 높은 요소라는 점

15) 연구자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만 일본어의 たりたて助詞로써 분류되는 형식으로는 「だけ、ばかり、しか、のみ、も、まで、さえ、すら、でも、だって、くらい(ぐらい)、など(なぞ、なんぞ、なんか)、なんて、こそ、は」(沼田2009:2)가 있고, 한국어에는 「은/는, 도, 만, 조차, 까지, 마저, (이)야, (이)라도, (이)나, (이)나, 뻘, (이)야말로」(趙愛淑1998:88) 등이 있다. 「など、なぞ、なんぞ、なんか」는 의미적으로 유사하지만 「なんか」는 「など、なんぞ、なぞ」에 보다 口語的表現이란 문체상의 차이가 있다(沼田2009:229,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2009:149).

6. 맺음말

본고에서는 일본어의 とりたて副詞「まして」와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副詞「하물며」를 고찰대상으로 하여 의미론적·통사론적 관점에서 양자의 문법적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まして」 및 「하물며」는 양자 모두 「<문중에서 초점화(focusing)되는 요소(自者)>와 <그와 對比되는 다른 요소(他者)>와의 範列的關係(paradigmatic relation)를 나타내」는 とりたて機能을 가지고 있고, 의미적으로 「A まして/하물며 B」의 「まして/하물며」는 他者A와 自者B를 서로 對比하여 양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 가는 나타내는 가를 문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自者和 他者は 서로 공통하는 述語에 의해 연결되어 해당 述語가 나타내는 事態(혹은 動作)를 성립시키기 위한 가능성이 他者보다 自者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그렇게 때문에 他者보다 自者和 연결하는 述語의 程度가 보다 심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쉽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自者和 他者が 尺度關係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事態를 성립시킬 가능성의 程度가 「높은 自者」와 「낮은 他者」의 관계를 이루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또한 自者和 他者が 範列的인 관계에 있다는 점과 自者和 他者が 동일한 述語와 관련되어 있다는 2가지 조건에 의해 自者및 他者和 연결되는 述語중에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모두의 述語가 문중에 나타나지 않고 문맥에서 想定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통사론적으로는 「まして/하물며」는 양자 모두 문장의 다양한 위치에 분포 가능한 점, 유사한 의미를 가진 とりたて助詞「なんぞ、なぞ、なんか」「-(이)야」와 共起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まして」는 주로 平叙文에 사용되지만 「하물며」는 疑問文에 사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단, 「まして/하물며」가 疑問文에 나타나는 경우 화자의 주장 등을 포함한 강한 긍정진술을 표시하는 疑似의문문 또는 反語의문문에 출현한다는 점은 일치한다.

とりたて연구에서 とりたて副詞와 とりたて助詞로 분류되는 형식 중, 서로 유사한 의미를 지닌 형식들을 비교 검토하면서 개별의 형식이 지닌 문법적 특성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과정은 결과적으로 「とりたて」체계를 명확히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參考文獻】

- 김경훈(1996) 『현대 국어 부사어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67쪽.
-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 탐 출판사, 361쪽.
- 김선영(2003) 『현대 국어 접속부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50-52쪽.
- 김정민(2000) 「焦点詞의 統辭와 意味」 『獨逸語文學』 11, 韓國獨逸語文學會, 379쪽.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 탐출판사, 180쪽.
- 손남익(1995) 『국어부사연구』 박이정, 24-26쪽.
- 박지숙(2002) 『국어 의문형 서법 부사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17쪽.
- 조에숙(2009) 「現代日本語 比較選択副詞에 관한 考察」 『日本語研究』 28, 檀国大学 日本研究, 394쪽.
- 최규련(1998) 「国語 焦点詞 '다만'과 '만'의 意味」 『한글』 240-241, 한글학회, 229쪽.
- 최규련(2005) 『국어의 초점사 현상』 한국문화사, 27쪽.
- 최현배(1937/1971) 『우리말본』 정음출판사, 601-603쪽.
- 安部朋世(2008) 「副詞マシテの用法と意味」 『千葉大学教育学部研究紀要』 56, 千葉大学教育学部, 291頁.
- _____ (2013) 「副詞マシテとナオサラの分析」 『千葉大学教育学部研究紀要』 61, 千葉大学教育学部, 398頁.
- 市川孝(1976) 「副用語」 『岩波講座 日本語 6 文法 I』 岩波書店, 238頁.
- 工藤浩(1977) 「限定副詞の機能」 『国語学と国語史』 明治書院, 971-972頁. 978頁.
- _____ (1982) 「叙法副詞の意味と機能」 『国立国語研究所報告71 研究報告集3』 国立国語研究所, 46頁.
- _____ (2000) 「副詞と文の陳述的なタイプ」 『日本語の文法3 モダリティ』 岩波書店, 180頁. 230頁.
- グループ・ジャマシイ(1998) 『教師と学習者のための日本語文型辞典』 くろしお出版, 149頁. 539頁.
- 寺村秀夫(1991) 「取り立て一係りと結びのムード」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Ⅲ』 くろしお出版, 3-9頁.
-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2009) 『現代日本語文法 5 第9部 とりたて・第10部 主題』 くろしお出版, 149頁.
- 沼田善子(1986) 「第 2 章 とりたて詞」 『いわゆる日本語助詞の研究』 凡人社, 128-143頁.
- _____ (2009) 『現代日本語とりたて詞の研究』 ひつじ書房, 2頁. 38頁. 46-54頁. 229-249頁.
- 趙愛淑(1998) 「韓国語の限定詞について—日本語との対照—」 『筑波応用言語学研究』 5, 筑波大学文芸言語研究科・応用言語コース, 88頁.
- 森田良行(1989) 『基礎日本語 1』 角川書店, 1058-1059頁.
- _____ (2002) 『日本語文法の発想』 ひつじ書房, 112頁.
- 飛田良文・浅田秀子(1994) 『現代副詞用法辞典』 東京堂出版, 490頁.

要 旨

本稿では日本語において副詞と分類される「まして」とそれと対応する韓国語の副詞「하물며」を考察対象として意味論的・構文論的観点から両者の文法的特性を比較・分析したものである。分析結果、「まして」及び「하물며」は両方とも「<文中で取り立てる要素(自者)>と<それと対比される他の要素(他者)>との範列的關係(paradigmatic relation)」を表すという「とりたて」の機能の持っており、意味的に「Aまして/하물며 B」における「まして/하물며」は先行要素Aを他者とし、後行要素Bを自者としてとりたて、両者がどのような関係にあるのかを問題している点で一致している。具体的に「まして/하물며」の自者と他者とは互いに共通する述語によって結ばれ、述語の表す事態を成立させる可能性が他者より自者の方が相対的に高い要素であることを示す働きをするものである。そのため、他者より自者と結び付く述語の度合いがより甚だしいものであるという解釈になれやすいことを指摘した。このような現象は、特に自者と他者とを尺度関係で捉えられる場合、当該事態を成立させる可能性の度合いが「高い自者」「低い他者」の関係を成していることから理解されることを述べた。また、自者と他者とが範列的な関係であることと、自者と他者の両者が同様の述語と関係していることという二つの条件によって、自者と他者と結び付く述語のうち、どちらか一方、あるいは両方の述語が文中に現れず、文脈から想定されることがあるということ述べた。

なお、構文論的な側面から見ると、「まして/하물며」は接続的な用法と副詞的な用法で使われているが、意味的な側面からでは同様の働きをしているため、用法の違いによる意味的な相違は見られないことを確認した。また、両者ともに文の様々な位置に分布できること、類似の意味をもつとりたて助詞「なんぞ、なぞ、なんか」「-(이)야」と共存できることという点では一致するものの、「まして」は主に平叙文に現れるが、「하물며」は疑問文に現れるという相違点がある。ただし、「まして/하물며」の両者が疑問文に現れる場合は、疑似疑問文あるいは反語疑問文であるということが特徴的である。

キーワード：とりたて、とりたて助詞、副詞、まして、하물며(hamulmye)、
対比、自者、他者

투 고 : 2013. 8. 31
1차 심사 : 2013. 9. 14
2차 심사 : 2013. 10. 5